

이 메일내용 미리보기

(단축키 : Q - 창닫기, R - 새로고침)

WED  
December  
09 2009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뉴스레터

제 24호 2009년 12월 9일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NEWSLETTER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Seal the Deal (협상을 끝냅시다!)”은 12월 7~18일에 걸쳐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15)에서 정당하고, 균형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교토의정서 후속체제를 촉구하는 유엔 캠페인입니다.

동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전세계 회원사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 CEO의 성명서를 [seal.the.deal@unglobalcompact.org](mailto:seal.the.deal@unglobalcompact.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주요 행사

UNGC 소식

회원사 CSR 활동

COP 제출 현황

회원사 현황

회원비 납부 현황

### 제 24호 하이라이트 I

조선 Weekly Biz '코펜 하겐 서밋 D-30' 2009/11/7

코펜하겐 회의가 기업들에 주는 의미

# ‘녹색’은 돈... 새 사업의 기회를 잡아라

주철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세계의 초점이 12월의 코펜하겐 회의로 모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된다는 것이 선진기업들의 인식이다. 탄소 배출의 적응과 삭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면서 나오는 여러 혁신이 기술 보급과 상용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녹색 자금’의 방대한 이동이 전망되는 가운데, 녹색부문 투자는 이제 신사업 계기로 여겨지고 있다.

녹색은 돈이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IT(정보기술) 혁명 이후에 오고 있는 녹색혁명의 시대는 세계의 빈곤층으로 남아있는 40억여명의 인구도 소비계층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이다.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세계 도처에서 기후 변화 관련 회의가 많이 열렸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지난 5월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세계최고경영자 기후변화대응회의이다. 이 회의에는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기업 및 친환경기업, 토탈·셀·BP 같은 에너지기업뿐만 아니라, 유니레버·네슬레

·롭시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가해 기후변화 대응 및 신사업 기회에 대한 광범위한 토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 2020년~2050년까지의 배출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라는 내용의 ‘코펜하겐요구선언’을 채택, 각국 정부 앞으로 전달했다. 이 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은 법적계적인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믿음을 표출하면서, 탄소가격 설정 등과 같은 탄

이 회의에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가해 코펜하겐 회의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도 적극 참여해 녹색성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세계적 동향에 눈여겨할 것이다.

사실 이런 기업단위 세계회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특히 강조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유엔이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나라 간 협의체라면, 유엔 글로벌콤팩트는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유엔 산하 기업 간 협의체다. 인권·노동권·환경·반부패라는 4대 부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받기된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지휘하는 세계 최대의 사회책임 이니셔티브다.

이 가운데 특히 기후변화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기후에 대한 배려(Caring for Climate)라는 국제환경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 물부족 문제에 대응해 수자원 관리취무(Water Mandate)라는 국제기업들의 단합된 운동도 펼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만들어가는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 그래야만 글로벌 동향에도 새롭게 눈뜨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 글로벌 기업들 대응회의 열여 한국은 극소수 기업만이 참여

소시정의 안정화, 시장 발전의 여건 보완, 현존 저배출기술의 적용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초창기 지원, 기업들이 녹색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국제적 투자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우리나라 기업은 극히 일부 회사만 옵서버로 참여해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 이후, 내년 4월 서울 코엑스에서는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글로벌콤팩트가 후원하는 기업환경정상회의가 열린다.

### 제 24호 하이라이트 II

경향신문 오피니언 2편 [p. 31] 2009/11/14

## 기대되는 한·중·일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공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에 공동 보소를 취하기 위한 한·중·일 3국 기업들의 의미 있는 협력력이 생겨났다.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의 한·중·일 각국 협회 대표들이 지난 주말 서울에서 첫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고, 앞으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만나 CSR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CSR이 강조되고 새로운 한·중·일 연대가 모색되는 시점에서 경제적 성장에 몰두해온 3국의 기업들이 사회책임경영이란 비경제적 영역에도 눈을 돌려 협력을 다짐한 것은 고무적이다.

글로벌 경영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개같이 벌여 정승같이 쓰던 시대는 지났다. 좋은 제품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금도 잘 내는 착한 기업만으론 부족하다. 노동과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부패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도 공헌하는 적극적인 기업시민이 요구된다. 착하게 벌여 정승같이 쓰는 위대한 기업만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CSR의 10대 원칙에 동의하는 기업과 단체가 모여

2000년 유엔 전문기구로 발족한 UNGC의 회원수가 130개국 700여곳으로 늘어난 것이 그 방증이다.

틀론 한·중·일 기업들의 CSR 수준은 경제적 실력에 크게 뒤진다. 그렇다고 CSR의 후발 3국 기업들이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것의 의미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UNGC의 이사인 최태원 SK 회장이 제안한 ‘권리사의(특利惡義)의 정신’은 시사하는 바 크다. CSR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익을 보면 의무로부터 생각했던 것 동양의 상도의를 되살리자는 것이다. 3국의 기업들이 사회책임경영이란 보편적 가치와 ‘의(義)경영’이란 동양적 가치를 잘란 조화한다면 새로운 사회정의와 기업시민상을 제시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를 날게 한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한·중·일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은 날로 커질 것이 분명하다. 세계경제의 주요 엔진중 하나인 3국의 기업들이 CSR의 지역 연대를 통해 ‘의경영’의 글로벌 엔진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2009년 12월 09일 뉴스레터 제 24호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요 행사



### Human Rights Labour Environment Anti-Corruption



## 2009 글로벌콤팩트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2009년 11월 13일, 하얏트호텔 리젠시룸

[공동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일본, 중국협회]

2009년 11월 13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동북아 지역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 1회 글로벌콤팩트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각 국가의 글로벌콤팩트 네트워크에서 공동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동북아시아 네트워크 간의 공식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에는 140명 이상의 기업, 학계, 정부기관 및 시민 단체 리더들이 참가하였으며, 3 개국 네트워크는 지역 내의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에 대한 향후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2010년 6월 24~25일 뉴욕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콤팩트 정상 회의(Global Compact Leader Summit)에서 발표될 것입니다.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지역 내에 사회책임경영 실천을 활성화시키고 윤리경영 리더십을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콤팩트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특히 기후 변화와 금융 위기와 같은 공동의 과제를 강조하며, 윤리경영 리더십, 투명성, 지속가능성,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지역 비즈니스 체제에 반영시킬 실천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 2009 China-Japan-Korea Roundtable Conference



2009/11/13, 하얏트 호텔 리젠시룸, 공동주최: 한국, 중국, 일본 글로벌콤팩트 협회

조선일보 2009/11/14

"아시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 위해 노력" [기사보기: 클릭]

**한겨레신문 2009/11/13**

"의를 좇는 아시아적 가치로 사회적임경영을" [기사보기: 클릭]

**매일경제 2009/11/13**

"녹색성장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 [기사보기: 클릭]

**코리아 타임즈 2009/11/1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Key to Successful Global Marketing" [기사보기: 클릭]

**동아일보 2009/11/14**

"韓中日기업인, '見利思義' 지향 손잡았다" [기사보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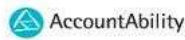
**연합뉴스 2009/11/14**

"韓·中·日, 기업사회책임 확산 합의" [기사보기: 클릭]

##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

2009년 11월 18일, 한국생산성본부

[공동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AccountAbility,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검증 표준을 개발하는 AccountAbility와 한국생산성 본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가 후원하는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을 11월 18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있어 핵심적 요소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비즈니스 측면과 전략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insight를 공유하고, 관련 최신 트렌드를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사학연금 가입증서 전달

2009년 11월 9일, 사학연금회관

[주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는 국내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연금기관입니다.



공단은 11월 9일 사학연금회관 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속가능경영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공단이 고객의 행복과 미래를 이끌어 가는 세계최고의 연금기관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인간존중, 고객지향, 윤리경영, 사회공헌을 핵심가치로 삼고서 전 임직원들이 이를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 행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위원회 주철기 사무총장의 가입증서 전달 및 격려사, 지속가능경영 실천강령 선서, 이사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유엔 조달시장 설명회

2009년 11월 19일, Trade Tower

[공동주최: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주최로 'UN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UN 조달시장 규모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UN 및 UN산하 기구에서의 조달절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UN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였습니다.

외교통상부 정상천 서기관은 UN 조달시장의 이해에 관해 설명하였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주철기 사무총장은 유엔조달시장 진출,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Susan Struck UNDP 조달관은 "Doing Business with the United Nations"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이어서 카라반이에스 권혁중 사장은 UN 조달 성공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 신한은행 제 16회 전국환경사진공모전

2009년 11월 20일, 한국금융사박물관

[공동주최: 신한은행, The Bank]

신한은행은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사랑 운동의 확산 및 사진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 16회 전국 환경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이 시상식 및 수상작품 전시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경영과정

2009년 11월 24일, 국립중앙박물관

[공동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국가인권위원회]

세계경제의 불황에 따른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의 재무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활동 및 인권보호등과 같은 비재무적 가치 또한 더욱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 아래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국내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권과 기업활동의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경영혁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책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의 의의를 역설하였고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교수는 인권리더십을 강조하였으며 글로벌강화포럼 강주현대표는 해외기업의 인권통합경영 사례와 자기진단 도구를 이용한 경영혁신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한경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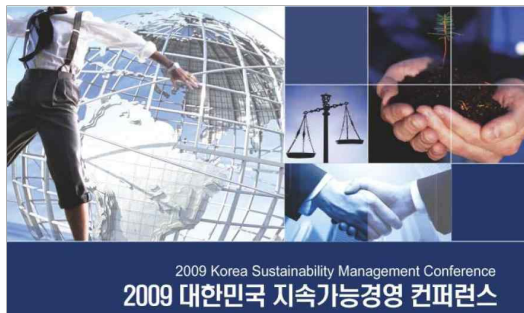
2009년 11월 26일, 신라호텔 영빈관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최근 국제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측면이 강조되고 이를 통한 규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기회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촉진시킴으로써 글로벌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탁월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Best practice] 발굴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가치와 방향에 대하여 강연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08일 뉴스레터 제 24호

**유엔글로벌콤팩트 소식 [세계동향, 한국기업활동]**



UNGLOBALCOMPACT.ORG



## 유엔글로벌콤팩트 협회 소식

### [2009/12/04] 국제 연합 총회, 기업의 참여 환영

2009년 12월 4일, 유엔 총회의 제 2위원회 (경제금융위원회)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유엔과 민간 부문 간의 관계에 대해 유엔 회원국의 의견을 통합하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총회 59번 조항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방향)의 의제로 채택되었고, 유엔의 목표를 지지하는 민간 부문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회원국들은 더욱 책임투자원칙(PRI)과 책임경영교육원칙(PRME)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이니셔티브는 글로벌콤팩트의 중요한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총회는 유엔 시스템상의 일관된 방식으로 민간 부문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난 11월 20일에 유엔사무총장이 발표한 유엔과 비즈니스 부문의 협력 방안의 개정을 환영했습니다.

[클릭: 기사 원문보기]

### [2009/11/23] 새로운 유엔-기업간 가이드라인 발표

유엔사무총장은 수정된 유엔과 기업 부문의 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으로 유엔-기업부문의 협력에 대한 공동의 틀로 시작되었던 가이드라인은 유엔 사무국에 적용되었으며 관리 행정 기관, 펀드 그리고 프로그램 등에도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독립성과 완전성을 확보하는 반면에, 유엔을 개혁하기 위한 사무총장의 주요 아젠다 중의 하나로서, 이 가이드라인은 유엔 직원들이 유엔과 기업 부문의 더욱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수정안은 유엔 부사무총장이 의장직을 맡고 기업과 협력한 경험이 있는 30개 이상의 유엔 기구, 펀드와 프로그램의 고위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은 유엔이 기업의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 그리고 책임과 지속성에 강화를 해서 파트너십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은 모든 유엔 기구가 사업 협력 틀을 수정하거나 개발할 때, 이 가이드라인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글로벌 콤팩트는 유엔의 파트너십 아젠다를 지지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시스템의 민영부분 쟁점에 대한 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유엔 직원들이 기업과 협력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매 분기마다 뉴스레터 "The UN-Business Focal Point" 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클릭: 기사 원문보기]

### [2009/11/20] 전문 자문위원단, 고 위험군 국가에 책임 투자 역할

글로벌콤팩트는 오늘날 분쟁 국가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 대한 책임 투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설립 의장인 Mark Moody-Stuart가 이끌고 있으며 60명 이상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관 투자자, 자산 관리자와 시민 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치 사슬과 전략적 사회 투자 참여를 강조하는 책임거래를 재고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초안 가이드언스에는 높은 위험이 작용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책임 투자와 책임 거래 행위에 대해 분명한 일반적인 이해가 논의 되어있습니다. 최종 가이드언스는 2010년 6월 24일부터 25일, 뉴욕에서 열리는 글로벌콤팩트 정상회담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에서 발표될 것입니다. Mark Moody-Stuart는 이 전문 자문위원단이 민영 부문과 투자자들이 분쟁 국가에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클릭: 기사 원문보기]

### 유엔글로벌콤팩트 업데이트 소식 보기

[www.unglobalcompact.org](http://www.unglobalcompact.org) [클릭: 바로가기]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업데이트 소식 보기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클릭: 바로가기]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홈페이지



<http://en.cop15.dk/> [클릭: 바로가기]



## UNGLOBALCOMPACT.KR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사 CSR 활동

#### 신한은행 "사회공헌 활동도 글로벌 무대로" [클릭: 기사 원문보기]

도쿄에서 열린 2009 글로벌공헌(GSR) 포럼. 한국 기업대표로 참석한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은행들도 이제는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을 통해 평가받는 새로운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글로벌 무대로 사회공헌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신한은행이 추구해 온 사회공헌활동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준다.

신한은행은 2004년 7월 은행권 최초로 행장이 단장을 맡고 전 직원이 봉사단원으로 참여하는 '신한은행 봉사단'을 창단했다. 봉사단 설립을 통해 '더불어 사는 행복, 커가는 기쁨'이라는 슬로건 하에 전통문화 보존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전 지점에서 문화재지킴이 활동,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결식아동 지원, 사랑의 연탄·김장 나눔, 긴급 재해복구 지원 등 릴레이식 나눔 사랑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 최초로 설립된 장학재단인 '신한은행 희망재단'의 활동도 눈에 띈다.

또 2005년 국내 은행으로는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원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해 사회공헌활동을 경영 전략의 주요한 축으로 만들어 놓았다.

최근에는 아름다운 재단, 사회현대은행 등 비영리단체(NPO)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나눔교육, 저소득빈곤층 지원사업 등 공익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는 상황. 신한은행은 이들과의 형식적인 연계를 떠나 사회적 임경영대출, 아름다운 펀드, 의인후원정기예금, 사랑의 약속 예·적금 등 공익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실질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급여 일부 반납해 장애인 인턴 고용 [클릭: 기사 원문보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 전문 공공기관이다. 공단은 이와 같은 사업 특성을 반영해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3월 600여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1~7%의 급여 반납으로 1억4800여만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 재원은 장애인 청년인턴 16명을 고용하는 한편 연말연시 실직 장애인 가정 돕기에 쓰일 예정이다. 이 밖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판로 개척을 포함해 설이나 추석명절 등에 어려운 이웃돕기를 전사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참여도는 최고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후원, 회사 내 실천교육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 정몽구 회장 600억원 기부 [클릭: 기사 원문보기]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이 7일 증가 기준으로 600억원 상당의 개인 보유 글로벌 주식 51만2821주를 해비치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2007년 10월 출범한 해비치재단은 정 회장의 사재(私財) 출연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로써 정 회장의 글로벌 주식 기부율은 24.36%에서 22.99%로 줄었다.

그가 기부한 600억원은 해비치재단을 통해 교통사고 유자녀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소외계층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용처는 해비치재단 이사회가 결정하게 된다. 해비치재단의 기금은 전액 정 회장이 출연한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정 회장은 2007년 11월 600억원과 2008년 7월에도 300억원 상당의 글로벌 주식 해비치재단에 출연했다. 이번엔 6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면서 정 회장은 지금까지 1500억원을 이 재단에 출연했다.

한편, 현대기아차그룹은 지난 2일 이웃돕기성금 1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소외 이웃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 <기업문화-하이닉스> 주인찾기는 '난항'...내실은 '탄탄' [클릭: 기사 원문보기]

올해도 하이닉스는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 9월 효성그룹이 하이닉스를 사겠다고 깜짝 등장 했지만 결국 2달 만에 포기. 앞으로 하이닉스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장기표류 할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하지만 외부적인 상황과는 별도로 하이닉스는 내실을 탄탄히 다지며 내년 큰 폭의 실적개선의 기반을 마련했고, 상생 협력과 기업문화 개선 등 올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이닉스는 지속경영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10월 국내 반도체 업계 최초로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국제협약인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다. 국제기준에 맞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해온 점을 인정받아 최근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올해 지속가능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이닉스는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문화 개선활동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만든 사내 업무 포탈의 '실시간 설문조사'는 인사복지업무기업문화에 대해 직원들의 응답을 집계하고 결과를 바로 볼수 있게 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매월 2번씩 실시되는 '실시간 설문조사'를 통해 회식문화, 눈치 보는 야근, 고쳐야 할 관습, 전자결재 실천 등에 대한 직원들의 목소리를 회사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가 사회공헌의 리더](상) KB 국민은행 [클릭: 기사 원문보기]**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적인', 'KB국민은행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이 그것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에 대한 후원을 가장 중요한 사회공헌 테마로 정하고 있다. 이들에게 공평한 배움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하는 취지다.

KB국민은행의 대표적인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라운아띠'다. 즐거운 친구들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 '고어'로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알리는데도 일조하고 있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으로 정부 및 국제자원봉사활동 관련 업계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평소 영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영어캠프체험 역시 주요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다. 영어캠프를 체험한 어린이는 2006년 2279명, 2007년 3436명, 2008년 3680명에 이른다.

또 2007년 4월부터는 서울, 포항 등 전국 10개 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2008년 서울, 포항 등 전국 26개 공부방을 'KB희망공부방'으로 선정해 대학생 학습지원 봉사자와 학습전문교사를 통한 성적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심을 굶는 결식아동을 위해선 KB행복한 밥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KB국민은행 임직원이 밥, 찬거리, 간식 등을 담은 '행복한 밥상' 세트를 만들어 1850여 가정에 보내기도 했다

세계 한글 알리기를 위해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및 카자흐스탄 등에 해당국가 언어로 된 한글교재 개발 및 보급에 힘쓰는 한글 나누기사랑도 전개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09년 12월 08일 뉴스레터 제 24호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관리**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2009년 12월 8일 기준)**

**COP 제출 현황**

제출 현황	COP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COP 제출기한이 지났음을 알려드립니다	COP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0일 미만)	COP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5일 미만)
유엔 글로벌 콤팩트 회원사	CJ (10/8) 대한항공(10/10) 한국전력(10/19) 에코프론티어(10/21) 웅진코웨이(10/21) 환경재단(10/30) 한국동서발전(10/31) 성주디엔디(10/31) 아모레퍼시픽 (11/9) 서울메트로 (11/24) 한전KPS주식회사 (11/30)	기업은행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전KDN 유유 동일방직 삼정 KPMG 한국산업은행 이건산업 알앤엘바이오 아시아나항공 신대륙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트레블러스 호텔 제주 창대성유 한국농촌공사 SBS	CN communication CN mvno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진흥기업



한겨레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경향신문  
 아리랑 tv  
 이라이콤  
 법무법인 태평양  
 에코아이

■ 회원 현황

- 12월 8일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한국 회원사는 모두 163개입니다.

■ 신규 가입사

- ㈜ 세일인터내쇼날(10/01)
- ㈜ 신평(10/28)
- 광진구청 (11/16)

■ 회원비 납부 현황 (2009/11/1 이후)

- 세일인터내쇼날
- 성주디엔디
- 한국철도공사
- 환경재단
- 홈플러스

■ 활발한 활동 감사 드립니다.

- COP를 위해 우리 협회와 연락하시고, 조기 제출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02)749-214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5가 파크타워 103동 1705호  
 전화: 02-749-2149 팩스: 02-749-2148  
 e-mail: ungckorea@gmail.com 홈페이지: www.unglobalcompact.kr

**이메일추천하기**

추천하는 분의 이름 \$NAME  
 추천받는 분의 이름  추천받는 분 이메일    
 메시지   
 - 추천하기가 안되시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위의 메일 내용에 대한 의견/소감/문의 사항을 간략하게 적으신 후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의견쓰기가 안되거나 50자 이상을 쓰실경우, [여기](#)를 눌러주세요.  
 In case of writing blocked, then press [\[here\]](#)

---

본 메일은 2009년11월30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